

★2019년 3월 23일 월례발표회(동국대학교) ★발표자 : 우성민(동북아역사재단)

<중국 중등 역사교과서의 개략>

◆교과서명:『中國歷史』七年級上冊(인민교육출판사, 2017)(2016년 교육부검정)

제1단원 선사시기 : 중국 영역 내의 인류의 활동

도입부분

중국의 광활한 대지에서 초기 인류가 잉태되고 있었는데 북경인이 바로 그 중 전형적인 대표임. 북경인의 유적의 고고학적 발굴 중 우리는 초기 인류의 생산과 생활 상황, 그들의 진화과정에서의 특징을 볼 수 있음. 약 1만년전에 중국 경내의 인류는 점차 농작물 경작, 가축 사육, 도기를 굽고, 갈아 만드는 방법 등을 알게 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함. 지금으로부터 4,000~5,000년 전 일부 부락에서 연맹을 결성하고, 수령을 천거하였는데 전설속의 염제와 황제가 바로 이시기의 걸출한 대표임. 후세사람들로부터 중화민족의 인문시조로 추앙받고 있음

제1과 중국 초기 인류의 대표 -베이징인

인류의 기원은 어떠한가. 역사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었음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고인류 화석 연구 근거에 의하면 인류는 고대 원인으로부터 점차 진화했다는 것을 발견함. 고대 인류는 중국경내의 기원은 언제이며 어디인가, 그들의 생산과 생활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 나라 경내의 초기 인류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대 인류 유적지가 가장 많이 발견된 나라 중 하나임. 고고학자들은 운남, 북경, 중경, 섬서, 호북, 요령, 하북, 안휘, 강소, 산둥, 사천 광둥 등지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고대 인류 유적지를 여러 곳에서 발견함
고고학자들은 운남성 원모현에서 상고시대 인류의 앞니 화석 두 개와 거친 석기,숯가루, 불에 탄 뼈를 발견했음. 원모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170만년전 우리 나라 경내에서 확인된 최초의 고대 인류임

북경인의 발견

북경인유적지는 북경시 서남쪽 주구점 용골산에 위치함. 1921년에 발견됨 그 후 인류학자들은 유적지에서 3개의 이빨화석을 근거로 이곳에서 활동한 고대 인류를 북경인으로 명명
1929년 북경의 청년학자 배문중은 또한 첫 번째 북경인 두개골 화석을 발견, 불을 사용한 유적지를 발견, 40여개의 직립인 화석, 10만개의 석기를 출토, 측정에 의하면 북경인은 약 70만~20만년전에 생활함

북경인의 특징

석기 제작 기술이 비교적 성숙, 찌르개,절삭기, 돌망치 등 이러한 타제석기를 사용한 시대를 구석기 시대라고 함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인류의 진화사에서 이정표가 됨

제2과 원시 농경 생활

반파주민의 생활 상고시대의 황하유역은 기후가 따뜻하여 인류가 활동하기에 적합했음. 섬서성 동쪽의 반파촌 일대에서 고고학자들은 대형 원시 취락 유적지를 발견함. 반파인은 정교한 마제석기를 만들었는데 마제석기를 사용한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고 함. 반파인의 생활기구는 주로 도기이며 채색도기가 가장 특색이 있음. 오키리나같은 악기, 방추도 출토도 출토됨

하모도인의 생활 7,000~8,000년 전 장강유역은 기후가 따뜻하고 강수량이 충족, 고고학자들은 장강유역에서 일부 유적지를 발견,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절장성 余姚에 위치한 하모도 유적지임 하모도인의 가옥은 주로 난간식 다락집 건축으로 중국에서 가장 이른 목조 건축임.

중국 고전 건축에 영향을 줌, 목조 우물도 발견됨. 대량의 인공재배벼가 발견됐는데 아시아벼의 기원지 중이 하나임을 보여줌. 농기구로는 쟁기가 가장 전형적임

원시농업의 발전 농업대국인 중국은 유구한 농업생산 역사를 갖고 있음. 황하유역은 조(粟)를 재배한 최초의 발원지로 약 7,000~9,000년 되는 최초의 조류 재배 유물이 발견됨. 원시농업은 최초의 화전경작으로부터 쟁기와 같이 땅을 갈아엎는 도구를 이용하여 밭을 경작하는 단계로 발전. 원시농업은 고대 문명사회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를 마련

제 3관 상고의 전설

염제와 황제의 연맹 인류의 기원과 관련된 신화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옴. 盘古开天(반고개천) 여와보천(여媧補天), 후예사일(后羿射日)등 초기 사회의 많은 전설이 있음. 그 중 염제, 황제 등 가장 유명한 전설 속의 인물임.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황하유역에서 활동한 비교적 큰 부락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황제, 염제, 치우 등 부락임. 부락간 서로 전쟁과 또한 부단한 병합을 통해 부락 연맹을 결성, 부락 연맹의 수령을 천거함. 황제는 여러 부락을 연합하였고 판천(阪泉)에서 염제와 대규모 전쟁을 벌였고 염제가 실패하여 황제에게 귀순했고, 양대 부락이 연맹을 결성함. 그후 염황 부락은 동방의 치우 부락과 탁록에서 격전을 치렀고, 황제부락은 방향을 분별하는 지남차를 사용하여 최우를 대패하고, 세력과 성망을 얻었으며 황제가 부락연맹의 수령으로 추대됨. 이 부락 연맹이 이후 점차 화하족을 형성한 것이며 후대들은 염제와 황제를 중화민족의 인문시조로 모시고 있으며 국내외의 중국인들도 “염황자손”이라 자칭하고 있음

전설 중 염제와 황제의 발명 전설속 염제와 그 부락은 주로 섬서 위하(渭河)유역에서 활동. 전설에 의하면 염제는 개간과 경작 기술, 생산 도구 제작, 오곡과 채소 재배 기술을 백성에게 가르침, 또한 도기 제작, 방직, 제염 기술, 무역과 교환 방법을 가르침. 염제는 거문고, 비파 등 악기를 발명했고 최초의 천문, 역법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 황제는 궁실을 건축할 줄 알고, 옷과 우물을 파고 배를 만들고 동을 제련할 줄 알았고, 활과 화살, 지남차를 발명했다고 함.

요, 순, 우의 선양: 황제 이후 황하 유역에는 도당씨, 유우씨, 하후씨 등 부족이 있었음. 이 시기에 기후 변화로 황하가 범람하여 홍수로 인한 재해가 심해 이를 막기 위해 세 부락이 연맹을 결성, 요, 순, 우가 차례로 연맹의 수령이 됨. 당시 부락 수령의 자리를 현명하고 덕을 갖춘 사람에게 나눠주는 선양제를 실시함. 요가 나이가 많아지자 각 부락의 수령의 의견을 구하였는데, 품행이 고상한 순을 계승자로 천거하였고, 순은 나이가 들자 우에게 자리를 내어줌. 禹는 치수의 중임을 맡은 후, 수로를 파서 운하를 통해 홍수를 바다로 흘러가도록 함. 그는 10여년이 노력을 기울여 결국 수해를 제거함

제2단원 하상주시기 : 초기국가의 탄생과 사회 변혁

제4과 초기 국가의 형성과 발전

“夏传子, 家天下, 四百載, 迁夏社(夏나라가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여 가족이 천하를 이루고, 400 년이 흘러 사직이 옮기게 되었다)”『三字經』에서 하조를 묘사한 부분임. 하조의 수립은 중국 초기 국가의 탄생을 상징함

하조의 수립과 가족천하 대략 기원전 2070년 우(禹)가 부락 연맹 국면의 막을 내리고 하왕조를 세움. 禹 재위시 남방의 삼묘족을 정복하고 양성(陽城)에 성지(城池)를 건설, 각종 제도를 제정함. 군대를 만들고, 형법 제정, 감옥 설치, 하력(夏曆, 하나라 역법) 제정

하조의 중심지역은 주로 지금 산서성의 남부, 하남성 중서부 일대 였음. 고고학자들은 낙양에서 하왕조의 도성 유적지인 이리두 유적지를 발굴함. 이곳에 궁전 건축군, 대형 묘장, 수공업 작업장, 제기로 사용된 옥기, 악기, 청동 주기, 녹송석(綠松石)이 상감된 청동 방패, 왕

실에서 사용한 예기 등이 출토됨. 이는 하조의 문명의 발전 과정을 보여줌

상나라 탕(商湯)왕이 하를 멸망 시킴 하조 후기에 하복성, 하남성 일대에 분포되어 있던 상(商) 부족이 점차 강대 해짐. 상의 수령 탕(湯)은 주변 부락과 손을 잡고 군사를 일으켜 하왕 걸(桀)을 공격했고 걸이 대패하여 하왕조가 멸망함. 대략 기원전 1600년에 탕(湯)은 상조를 세우고 박(亳)에 도성을 세움. 전란과 환경 변화 등 영향으로 상은 여러 차례 도읍을 옮겼는데

상왕 반경(盤庚)때 도읍을 은(殷)으로 옮긴 뒤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함. 상은 장기간 대외 원정을 하여 통치 범위를 넓혔음. 상 주(紂)왕은 상조의 마지막 왕으로 대외 정벌 시 국력을 소모하고 동시에 호화로운 궁전을 건축하였으며 백성에게 가중한 부세를 징수하고 흑형을 가하여 백성들을 잔혹하게 해침

무(武)왕이 주(紂)를 정벌 상조 말기에 섬서성 위수 유역의 주원(周原) 일대에 분포된 주(周) 부락이 국토를 부단히 확장하면서 신속히 발전함. 주 무왕때 려상(呂尙), 주공(周公) 등의 보좌를 받아 날로 강성해짐. 기원전 1046년 각지의 세력을 연합하여 방대한 정체연맹을 결성하고, 상군과 목야(牧野)에서 결전을 벌였는데, 상군이 창끝을 돌려 주군은 상의 도성을 점령, 상조는 멸망함. 주 무왕은 주를 세우고 호경(鎬京)을 도읍으로 정하여, 역사에서 이를 서주라 함

서주의 분봉제 주조 초기에 정치를 안정시키고 영토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왕은 혈연관계의 멀고 가까움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종친과 공신들을 각지에 분봉하고 그들에게 토지와 백성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제후국을 세움으로써 지방에 대한 주의 통제를 담보한 동시에 통치범위를 확대 시킴. 제후들은 비교적 큰 독립성이 있었지만 주왕에게 공물을 진헌해야 했으며 주왕의 군대 이동에 복종해야 했음. 분봉을 받은 자는 자기의 봉지내에 재분봉을 할 수 있었는데 이로써 “분봉제”가 확립되었음. 주대의 귀족은 천자, 제후, 경대부, 사로 나뉨. 기원전 841년 주려왕(厲王)이 백성과 이익다툼을 하면서 ‘국인폭동’이 일어나자 려왕(厲王)이 도망함. 주유왕(周幽王)때 조정은 부패해지고 각종 갈등이 격화됨. 기원전 771년 서주는 건융족에 의해 멸망당함. 그 후 주평왕(平王)이 동쪽 낙읍으로 도읍을 옮기는데 역사에서 이를 동주라고 함

제 5과 청동기와 갑골문

청동기의 뛰어난 공예 상조이후에 청동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종류가 점차 풍부해졌으며 주로 음식물과 제사 및 군사 등 면에서 사용됨. 기능도 식기 등에서 예기로 발전하면서 왕공귀족들의 신분 지위나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 기물이 되었음. 상조 후기에 이르러 청동주조업은 규모가 방대하였을뿐아니라 분업이 섬세하여 대형기물을 주조할 수 있었음. 예를 들어 사모무정(司母戊鼎)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출토된 청동기 중 가장 무거운 청동기로서 무게가 832.84 키로그램이나 됨

갑골문 기록 갑골문은 상, 주 시대의 거북 껍질, 소, 양 등 짐승의 뼈에 새긴 문자임. 1899년 청조 왕의영(王懿榮)이 처음으로 갑골문을 발견한 뒤 안양의 은허, 섬서, 산둥 등지에서 다량으로 상조, 서주의 갑골이 출토되었는데, 이미 16만 조각이 넘었고, 그 중 상조의 글자가 있는 갑골은 10만 조각, 글자는 4,500자 정도 되는데 이미 식별해 낸 글자는 1,500자임

갑골문의 문자 창제 특징 갑골문은 상형, 지사, 회의, 형성, 가차 등 여러 문자창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갑골문은 이미 한자의 기본 구조를 구비하고 있었고 많은 글자체는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

제6과 불안정한 춘추시대

춘추시대의 경제 발전 춘추시대에는 사회경제가 매우 큰 발전을 가져왔음, 특히 춘추 후기 철제 농기구와 우경이 나타나 농업 경작을 촉진하고 산림개발과 농경지 확대를 가능케 함 농업이 발전하면서 청동업, 제철업, 방직업, 제염업, 철기제작 등 모두 발전을 가져와 많은 도시에서 상품교역시장이 나타나고 금속화폐가 더 많이 사용됨

왕실의 쇠퇴 춘추시대의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면서 서주의 각종 제도는 점차 파괴됨. 일부 제후국들은 더 이상 토지를 경대부에게 주지 않고, 현, 군을 설치하여 관원을 파견

하여 관리하고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분봉제는 점차 와해됨. 주평왕이 동쪽으로 도읍을 옮긴 후 주왕실의 통치력이 크게 약화되어 큰 제후세력들이 꺾기함.

제후들의 패권쟁탈 춘추 시대 많은 제후국들이 있었는데 그중 비교적 강대한 제후국은 10여개였음. 정치, 경제 발전이 불균형하였기 때문에 각 제후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치열하게 경쟁함. 그때 민족간의 갈등도 다소 심해짐. 일부 강대한 제후들은 “존왕양이”의 구호를 내걸고 출정함. 제환공, 진문공, 초장왕, 진목공 등 전후로 중원을 제패함. 춘추말기에 이르러 장강하류의 오나라도 월나라와 전후로 북상하여 패권을 쟁탈함. 춘추패권쟁탈과정에서 어떤 제후국은 멸망하였고 일부 강대한 제후국은 영토가 부단히 늘어남. 이와 동시에 중원의 “제화(諸華)”, “제하(諸夏)”가 부변의 융, 적, 만, 이 등 민족들과 오랫동안 왕래하는 가운데 대규모적인 민족융합이 이루어짐.

제7과 전국시기의 사회변화

전국칠웅 춘추전국시대의 300년에 달하는 분쟁을 거쳐 대부분 제후국들은 겸병되고 몇 개 큰 제후국이 정국을 좌지우지 했는데, 당시 제, 초, 연, 한, 조, 위, 진의 7개 나라의 세력이 비교적 강하여 “전국칠웅”이라 함. 칠웅간의 겸병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전국중기 이후 각 제후국의 세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했는데, 제나라, 조나라, 진나라가 꺾기했고, 특히 서부에 위치한 진나라가 강한 제후국이 되면서 동방 6국을 위협함

상앙변법 전국시대에 철제도구사용과 우경이 더 보급되면서 사회생산력이 제고되고 신흥지주계급의 세력이 커짐. 사회, 정치, 경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각 통치자들은 변법을 실시했는데, 진나라의 “상앙변법”이 성과가 가장 컸음. 기원전 356년에 진효공이 상앙을 임용하여 일련의 개혁조치를 실시하였고, 진나라는 국력이 크게 증강하여 가장 강성한 제후국이 됨으로써 전국 통일의 토대를 마련함

천추만대에 복을 주는 도강언(都江堰) 전국후기 진나라는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점을 수리건설에 두었음. 기원전 256년 촉군 군수 이빙(李冰)의 주관하에 성도부군의 민강에 도강언을 건설함. 리빙 등은 높은 산과 평원의 접경지를 골라 지세와 물길을 이용하여 대형 수리공사를 축조함. 도강언은 제방과 홍수분류, 모래제거, 물 흐름 통제 등 효능을 체계화하여 홍수방지, 관개, 수상 운수 등 여러면에서 역할을 발휘함. 건설된 후 성도평원은 기름진 “천부지국(天府之國)”으로 불림

제 8과 백가쟁명

노자 춘추 후기 초나라 사람인 노자는 도가학파의 창시자로, 주나라의 사관을 하면서 왕실의 전적을 관리한 적이 있음. 그의 학문이 박학하여 공자가 많은 문제에 관하여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고 함. 노자는 정치적으로 “무위이치”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세상과 다투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세상은 태평해질 수 있다고 함. 그의 학설은 『도덕경』이라고 하는 『노자』라는 책이 집중되어 있음

공자와 유가학설 공자는 춘추후기의 노나라 사람이며 하층귀족가문에서 태어남. 어려서 예악을 공부하였고 젊은 시절 작은 벼슬을 한 적이 있으나 후에는 제자를 받아 사학을 열어 유명한 학자가 되었음. 공자의 핵심사상은 “인”으로 “자기가 성공하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자기가 이루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이루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을 최고의 도덕규범을 삼았음. 통치자들에게 민의를 헤아릴 것을 요구하며 덕정을 실시하게 함. 공자는 대사상가이며 대교육자이기도 함. 사학을 창설하여 귀족과 왕실이 교육을 독점하던 국면을 타파하여 민간에서의 교육 발전을 촉진함. 만년에 심혈을 기울여 고대의 중요한 문헌자료를 정리하여 중국 고대 문화경전과 학술사상의 전승에 공헌을 함

백가쟁명 당시 각 학파의 대표인물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하고 학술을 연구, 토론하였으며 책을 써서 자기의 견해를 주장함. 그들은 각종 정치주장과 치국방략을 제시하여 자기의 학설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음. 사상, 정치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진 학파는 치열한 논박을 하면서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였는데 이러한 사상문화의 번영한 국면을 “백가쟁명”이라 함. 이는 중국 고대의 첫 사상문화발전의 최고봉이 되어 중국 고대 문화 발전에 기초를 다졌고 후대에 매우 중요하며 심원한 영향을 줌

